

보도시점 2026. 5. 26.(화) 16:00 배포 2026. 5. 26.(화) 15:30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AI DATA 전문기업 '엔코아' 방문

- 공공 데이터 품질·민관협력(거버넌스) 고도화 논의
- 오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참여 협조 요청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I)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연료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와 범국가적 데이터 유통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소통에 나섰다.

26일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서울 마포에 있는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사옥을 방문해 데이터 가공 및 관리 솔루션 시연을 참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선결되어야 할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안 처장이 이날 방문한 엔코아는 약 700여 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1,2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데이터 전문기업이다. 최근 단순한 데이터 관리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즉시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친화적 데이터(AI Ready Data)' 구축을 주도하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체질을 혁신하고 있다.

특히 엔코아가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데이터 자산화 및 구조화' 기술은 데이터처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친화적(AI-ready) 속성 정보(메타데이터) 구축' 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과 엔코아 김주민 대표는 “

인공지능(AI) 도입이 실패하는 주된 원인은 뛰어난 인공지능(AI) 모델의 부재가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파편화된 데이터에 있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처·기관 간 처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속성정보(메타데이터)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필요한 곳에 막힘없이 흐르며 인공지능(AI)이 정확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범국가적 데이터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 품질과 민관협력(거버넌스)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AI)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부처와 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가 제대로 흐르는 초연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데이터처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엔코아와 같은 전문기업의 현장 노하우를 적극 참고하여, 속성정보(메타데이터)와 표준화에 기반한 진정한 행정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안 처장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산업생태계 변화를 파악하는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 인공지능통계혁신과	책임자	과 장	이선희 (042-481-3604)
		담당자	사무관	김계은 (042-481-3609)

붙임 1

행사 사진



▶ '엔코아'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왼쪽)



▶ 주요 인사 기념 촬영  
- 가운데 왼쪽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